

런던 최고의 체임버 뮤지컬 <타이타닉(Titanic)>

글_김준영(런던통신원, 런테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Annabel Vere & Scott Rylander

재난은 언제나 세인들의 관심을 부른다. 1985년 북대서양 심해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타이타닉호의 부서진 잔해가 발견되면서 공연과 영화계의 이야기꾼들이 모이게 된다. 특히 이 소식은 당시 무대공연과 영화를 넘나들며 토니와 올리비에상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는 모리 예스톤(Maury Yeston)의 깊은 관심을 끌어냈고 마침내 그의 음악으로 1997년 탄생한 '재난 뮤지컬 <타이타닉>'은 이듬해 최우수상을 포함해 모두 5개의 토니상을 받게 된다. 작가인 피터 스톤(Peter Stone)과 모리는 스토리 자체가 무대공연으로는 다소 흔하지 않은 소재라고 판단하지만 공연예술에 몸 담은 이상 처음부터 손쉬운 작업을 예상하지 않았고, 한 세기가 넘어가는 시점에 일어난 독특한 영국 문화(엄격한 사회 계급, 기술 발전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시점) 속에서 일어난 '인재'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를 담기로 했다. 이렇게 하여 천만 달러(약 110억)라는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브로드웨이에서 제작된 타이타닉. 세트로 만들어진 거대한 배가 기술적 오류를 보이더니 급기야 공연의 미학적 완성도와 평단의 낮은 점수로 인해 결국 804회를 끝으로 막을 내리는데, 그해 연말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 <타이타닉>으로 다시 태어난 비운의 공연이다.

이 '좌초된' 공연의 음악을 특히 좋아하던 런던의 한 여성 프로듀서가 있었고, 그녀는 많은 관객들이 스토리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최초 56명의 배우를 20명으로, 22명의 오케스트라를 6명으로 스케일을 줄여 '체임버 버전(Chamber Version)'을 만들게 된다. 2013년 당시 10만 파운드(약 2억 원)라는 초 저예산으로 재탄생한 공연 <타이타닉>이 런던 프린지 극장에서 다시 떠오르면서 브로드웨이 프로듀서들의 러브콜을 받았다.

아래는 공연을 제작한 다니엘 타렌토(Danielle Tarento) 프로듀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3년 만에 다시 같은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필자는 3년 전 런던 초연을 보았고 프로듀서와는 초면이 아니다) 왜 다시 타이타닉인가? 지금 영국이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BREXIT)) 여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혹시 영국 사회나 정부를 향한 의도된 목소리를 내는 것인가?

모든 연극은 정치적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의 미래가 좌초될지 순항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브렉시트를 두고 영국 총리와 타이타닉의 선장을 떠올린다거나, 테러와 전쟁을 피해 유럽 여러 곳으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지금의 난민사태를 당시 2등석 승객들이 새로운 삶을 찾아서 바다로 나선 것과 비슷하게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작품이 이런 민감한 정치적 시점에 오른 것은 우연이지 결코 기획된 것이 아니다.

웨스트엔드 256석의 소극장에서 약 20명의 배우들과 6명의 오케스트라로 여전히 11만 파운드(환을 변동으로 약 1억 8천만 원)라는 저예산으로 제작했다.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라 3년 전보다 형편이 더 좋아졌을 텐데…… 제작의 방향성이 무엇인가?

체임버 버전의 전략은 불필요한 이야기를 제거하고 무대를 줄여 제작비를 낮게 책정하고 티켓값을 내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접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분명한 것은 제작비를 더 많이 투자하면 작품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필연적으로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야기와 배우 중심으로 끌어가는 것이 제작방향의 목표였다.



프로듀서_다니엘 타렌토

공연 제작 생태계에 대한 질문이다. 웨스트엔드의 대형 공연 산업과 맞서는 과정에서 투자와 유통에 어려운 점은 없나?

솔직히 다른 경우는 잘 모르겠다. 내 제작 방식에 먼저 별다른 이유는 없지만 국가(예술위원회(ACE))의 지원금은 생각하지 않았고 모두 외부에서 투자를 받는다. 투자가 어렵지는 않았다. 작품의 완성도가 이미 언론에 알려져 있어 배우를 찾는 데도 어렵지 않았다. 10주 공연 동안 극장과 제작사가 각각 50%씩 제작비를 투자했고 수익을 50:50으로 나누기로 했다. 수익이 나오기만 한다면…….(웃음) 지방 투어 및 해외 투어도 협상 중이라 스케일이 작을 뿐 웨스트엔드 대형작품과 공연 유통방식은 비슷하다. 올 9월까지 앞으로 세 작품이 더 남아 있다.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제작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여기서는 한국)제작사, 작가 및 프로듀서와 협업을 고려하는가?

공연 장르의 완성은 무조건 사람과 사람과의 교류이다. 제작에 있어서도 해외 인재와의 교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 좋은 파트너가 있다면 뭉쳐야 한다. 그래야 제작비도 줄일 수 있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된다.

3년 만에 런던에서 다시 출항한 <타이타닉>은 배의 선수와 현측을 원래 있던 극장 및 객석의 구조가 그대로 지원해 주고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인지 마치 관객 모두가 타이타닉호에 승선해 갑판에서 당시의 사건을 지켜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킨다.

1등석 기득권층의 욕구에 편승하고 선사의 명예를 위해 속도를 높이다 빙산에 좌초한 배를 두고 선장과 선사의 오너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장면이나 상위 클래스 여성과 아이들을 구명보트에 먼저 태우는 동안 말없이 끼어드는 상류층 남성의 고개 숙인 모습, 그리고 14세의 어린 갑판 선원이 전방을 주시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을 고백하는 장면들에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뉴스거리들과 묘하게 중첩되어 씁쓸함을 더했다. 1500여 명의 승객이 익사하는 동안 구명 보트엔 450석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은 공연을 마치고 자리를 일어서면서 맞이하게 되는 2차 쇼크였다.

공연은 '떠다니는 도시' 라는 애칭의 타이타닉을 칭송하는 한편 떠다니는 인간의 욕망과 계급사회의 단면을 보여준 분명한 정치 드라마였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 등급이 나뉘어진 당시의 수저 이론은 여전히 우리 삶 가까운 데 있으며 항공기나 배, 호텔에서는 분명 이런 클래스를 여전히 돈으로 사고 판다. 아이러니한 것은 필자가 자리했던 극장에서도 등급별 좌석이 있어 이를 고발하는 <타이타닉> 공연을 보는 내내 이런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것이다. 📌



©Annabel Vere & Scott Rylander



©Annabel Vere & Scott Rylander



©Annabel Vere & Scott Rylander